

울산 노인 복지의 산실... 사각지대 찾아가는 사업 '눈길'

개소 10주년 맞은 원각선원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사장 보연)에서 운영하는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소장 이명희·이하 연화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자비정신으로 노인복지를 담당하며 포교 활동을 펼쳐온 연화지원센터는 차상위 계층과 소외 계층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내 도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울산 지역 내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만 해도 현재 900여명에 이른다.

2005년 5월 문을 연 연화지원센터는 2007년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을 시작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연화지원센터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사업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발굴해 결연을 맺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도 폭 넓게 펼치고 있어 복지 지원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연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사업은 하루 8시간 이상 센터 자체 내에서 어르신들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당뇨와 지방 상태를 매일 체크해 제철 과일과 농특지방 등 어르신들에 맞는 건강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오후에는 심리 치료 및 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간보호사업은 보호자들의 경제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육명신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보호자들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형편이 여의지 않은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을 짐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 가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난 5월 30일 울산 연화홀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개소식 후 기념 사진.

2007년 저소득층 식사배달로 출발

현재 900여 명 어르신 보호관리

주간보호사업 특화... 1일 8시간 이상

5월 30일 개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정불화의 단초가 된다"며 현실을 설명한다. 이어 씨는 "이런 가정의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이라도 보호하고 도와드리도록 보호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어르신들도 좋은 서비스로 행복해 한다. 현재는 22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간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결연 사업 중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한, 매주 1회 어르신들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용 이동 욕조 또한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해 하루 종일 누워있는 와상 환우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 혈액순환을 돕고 욕창을 방지하고 있다.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차량용 이동 욕조는 평소에도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들의 목욕을 손쉽게 도울 수 있어 어르신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감사해한다"며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효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 및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평소 여행을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었던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있다. 연화지원센터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차량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또한 시골인이라 위급한 상황에 도움 요청이 와도 기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아울러 부탁했다.

한편, 연화지원센터는 지난 5월 30일 울산 연화홀에서 이사장 보연 스님을 비롯해 법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명희 소장은 "그동안 도움주신 후원자님, 봉사자님, 힘든 일도 묵묵히 잘 따라와준 센터 직원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며 "지나온 10년이 성장의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성숙한 모습의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재난위험경감사업 추진

미안마 '이와라디' 지역 등 5개 마을에서 실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미안마 '이와라디' 지역에서 '미안마 주민조직에 기반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주민들이 마을 도로공사에 하고있는 모습.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미안마 '이와라디' 지역에서 '미안마 주민조직에 기반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규격을 뛰어넘는 긴급재난구호 활동을 펼쳐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한 후 구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고자 한다"며 사업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사업을 추진 중인 이와라디지역 5개 마을(총 약 600가구, 3000명)은 지난 2008년 태풍 나르키스의 피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으로, 미안마에서 가장 큰 강줄기 옆에 위치한 마을의 특성상 매년 큰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입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재난 대비 취약성을 살피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 감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집과 집,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기 위해서

는 배를 타야만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상 재난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운 대상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5개 마을에 재난 대피용 도로를 신설하고, 다리를 건축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손쉽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정수시설을 만들고, 마을도로를 정비하고, 다리를 건설하며 환경개선 및 대피로를 구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는데 의의가 있다"며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해 재난위험경감조직을 결성하여 지속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제개발협력담당자를 현장에

파견, 현지 단체 'BEDAR' 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오는 6월 말 현장 점검을 통해 우기를 맞이한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지난 6월 9일~10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밝은 마음 명상캠프'를 실시했다.

한국문화연구원의 박희승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명상 이론, 걷기 명상, 좌식 명상, 선체조, 숲길 명상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명상법을 익혔다. 정혜숙 기자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이동세탁 서비스 실시

6월 15일 20여 어르신 대상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15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세탁서비스를 실시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15일 서울시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지역 내 수급 및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세탁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동세탁서비스는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대형세탁차량을 통해 평소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2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탁서비스를 통해 평소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침구류 및 의류 등의 세탁과 살균건조가 함께 이루어져 보다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8월과 9월에도 대한적십자사 및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세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문해 교육생 모집

기초한글교육 및 핸드폰 교육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성인 문해 교육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의 생애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적인 한글

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2학기부터는 핸드폰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에 발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컴퓨터와 한글 수업을 접목시킨 기능문해반의 경우, 문서작성 및 인터넷,

이메일 등의 활용방법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수준 향상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배움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시화전·백일장 및 체험활동이 함께 진행 되고 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과 제 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02)817-8052 정혜숙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6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력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